



2023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10월 12일~15일)기획전 일환으로 '빛도 꿈을 꾸는가' 전이 G.MAP에서 열린다. 사진은 김태은 작 '메타 피망'.

인간·자연·생명체 관계 '빛도 꿈을 꾸는가?'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10월12~15일 G.MAP 광장·사직공원 등 김세진·류성실 등 41명 작가 참여...빛의 속성과 사물의 실체 탐색

다양한 색채의 비정형의 모형들이 화면을 떠다니는. 특유의 전기 울림소리와 맞물려 변화하는 화면은 우주의 어느 공간을 떠올리게 한다. 신비롭고 이채롭다. 울긋불긋한 색채들은 보는 이에게 색감의 파노라마를 선사한다. 한편으로는 생명체의 세포들이 끊임없이 분열하는 장면 같기도 하다. 빛이 만들어낸 오묘한 형상들은 실제하는 너머의 또다른 세계를 꿈꾸게 한다. 저 빛들은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

김태은 작가의 '메타 피망'은 소리와 빛으로 상상을 자극한다. 말 그대로 데이터나 정보를 근거로 특정 환경을 경작한다는 의미다. 작가는 땅 속 소리를 추출해 데이터를 시각화했다. 특정 장소의 소리 데이터를 모아 가상공간 안에서 생명의 환경을 구축하고 경작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오는 10월 12일 개막하는 2023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10월 15일까지)을 앞두고 의미있는 기획전이 G.MAP(Gwangju Media Art Platform)에서 열린다. 이번 미디어아트페스티벌은 올해로 12주년을 맞았고 광주시는 미디어아트 창도시 10주년을 맞았다.

특히 이번 페스티벌은 국내 및 국제 미디어아트 네트워크의 국제적인 허브가 될 G.MAP(광주미디어아트 플랫폼)을 중심으로 광장, 사직공원, 광주교의 창의벨트 1, 2, 3권역으로 확산해 축제의 장으로 자리잡는다. 그 가운데 10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기획전의 주제는 '빛도 꿈을 꾸는가?'

주제부터 철학적이며 깊은 사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인간의 정신과 물질에 대한 물리학적 탐색은 앞으로 펼쳐질 시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필수불가결한 부분일 것이다.

참여 작가는 김세진, 김준서, 김영우, 김태은, 류성실, 목진오, 소수빈, 윤대원, 이이남 등 모두 41명. 이들이 출품한 41개 작품은 과학기술과 함께 새롭게 대두되는 융복합 미디어매체들을 통해 빛의 속성과 사물의 실체를 탐색한다. 빛을 매개로 인간과 생명체들의 비밀을

하나하나 들춰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시는 크게 '숨쉬는 플라즈마', '메타각각의 존', '베일벗은 플렉스' 등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숨쉬는 플라즈마'에서는 인간과 자연, 정신과 물질에 대한 물리학적 탐험이 주를 이룬다. 이이남 작가의 '다시 태어나는 빛'은 '나'의 근원을 탐험하는 작품으로 눈길을 끈다. 작가는 팬데믹 속에서 이성을 중심으로 대상과 주제를 객관화하는 서구적인 관점을 벗어나 공존하는 동양적 관점을 취한다. 작가가 대상을 풍경이라 부르는 서구적 관점보다 '산수(山水)라 칭하는 동양의 정신을 추구한다.

목진오 작가의 '왕좌'도 눈길을 끈다. 컨베이어 벨트는 정해진 구조를 따라 서로 어긋나는 방향으로 끝없이 회전한다. 각각의 LED들은 개인들을 의미하고, 컨베이어 벨트는 산업사회 구조의 개인들을 상징한다. 현대 사회의 개인들의 자화상을 산업구조와 연관해 표현한 것이다.

최찬숙 작가의 '큐비 투 아담'은 땅과 몸, 소유에 대한 성찰을 담은 작품이다. 4채널의 영상에 서로 다른 서사가 공간에서 합쳐지고 분리되면서 서로의 관계가 정립되는 양상을 풀어냈다.

'메타각각의 존'에서는 안성석의 '너의 선택이 그날이면', 소수빈의 '예술과 식물 사이의 위장', 윤대원의 'Connection' 등의 작품을 만난다. '넘어선다', '초월한다'는 뜻을 지닌 메타의 의미처럼 감각 너머의 것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 관객을 맞는다.

'베일벗은 플렉스'에서는 수시로 변하는 미디어아트의 베일을 벗기는 영상전과 조우한다. 김영우 등 24명 작가의 24개 작품이 등장한다.

한편 이번 미디어아트페스티벌은 미디어아트 전시 외에도 광장 축제, 매칭 페어의 산학연계 프로그램, 국내 학술 세미나, 국제 학술 포럼 등이 진행된다. 개막식은 오는 10월 12일 오후 7시 G.MAP 및 광주 일원에서 펼쳐진다.

문진영 광주시 문화정책관 시각예술팀장은 "미디어



목진오 작 '왕좌'

아트페스티벌은 광주가 지니는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확장하며 인간과 자연의 생태적인 순환구조를 통한 인간과 자연의 생명 존중을 지향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아울러 국내 및 국제적인 미디어 아트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시 전문지 '상상인' 6호 발간

전혜수 문학평론가 '문학과 AI' 기획특집

다양한 분야의 AI 대체가 현실화되면서 AI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한때는 자동화 대체가 어려울 것으로 여겨지던 직업군에도 AI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추세다. 그 대표적인 분야가 예술이다. 창의적 영역 일테면 시와 소설, 그림 등에도 AI가 예상 밖의 성과를 내면서 점차 인간의 상상력과 자유의지를 위협하는 상황에 처했다.

최근 발간된 시 전문지 '상상인' (통권 6호)이 기획특집으로 '문학과 AI'를 다뤘다.

먼저 전혜수 문학평론가가 '문학과 AI'를 주제로 예술 창작 영역으로 들어온 AI를 짚어본다.

전 평론가는 "어느 시거나 선풍적 판단으로 시대를 앞서 나가던 예술가는 있어왔다. 1930년대 아방가르드 문학은 관습적 예술에 충격을 주었다"며 "그러나 21세기 인공지능은 변화와 발전이라는 가면 쓴 이름으로 인간만이 누리던 문학의 존폐를 야기하고 있다. AI가 예술 창작 영역으로 깊숙이 들어올 수 있음은 이미 확인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기석 문학평론가는 '난해하거나 불편하거나 쓸 데 없거나'라는 주제의 글에서



"오늘의 문학이 다시금 AI와의 협업이라는 창작열기로 불붙고 있으니, 가히 문학에서 AI의 개입이 옳고 그름을 따져 보기도 전에 시대의 흐름으로도 이러한 시도들은 급물살을 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호 포커스에는 이병률 시인의 신작 시 '하산'의 2편이 실렸고, 권은 문학평론가는 '당당하게 움직이는 행동하는 시인'이라는 주제의 작품론을 게재했다.

특집 조맹에서는 최정아 시인을 주목했다. 시인의 '이식'의 2편을 만날 수 있으며 이성혁 문학평론가가 '얇은 몸이 피워낸 시편들'이라는 작품론을 썼다.

시·움 코너에는 강인한, 정지우, 박몽구, 박관서, 신덕룡, 함진원, 강주, 정영주 시인 등의 시가 시조·움 코너에는 윤금초, 박현덕 시인 등의 작품이 실렸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소덕이와 동물친구들 '충장프렌즈'

광주충장축제 굿즈 50종 출시...봉제인형·문구·소품류



충장축제 굿즈.

(광주 동구문화관광재단 제공)

올해 20주년을 맞은 광주충장축제(10월 3일~9일)가 새롭게 선보이는 캐릭터 '충장프렌즈'를 다양한 굿즈 상품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광주 동구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문창현, 이하 동구문화관광재단)은 최근 충장프렌즈 캐릭터를 비롯해 제20회 충장축제 기념 굿즈 50종을 출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충장프렌즈 캐릭터는 1세대 캐릭터인 충장이와 금남이가 키우는 무등산 아기호랑이 '소덕이'와 동물친구들로 동구문화관광재단이 이를 활용해 봉제인형, 문구류, 소품류 등 충장축제를 상징하는 기념품으로 제작했다.

특히 올해는 20주년을 맞은 충장축제 기념 에디션인 만큼 추억의 감성과 MZ 취향을 반영한 뉴트로풍 디자인이 방문객의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20주년 기념 굿즈 출시를 기념해 오는 27일까지 SNS 사전 이벤트도 실시한다. 참여자에게 충장프렌즈 봉제인형, 인형키링, 레디백, 그림책, 유리컵, 마우스패드 등 7종 총 300개를 선착순 제공한다.

참여 방법은 동구문화관광재단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우(계정명:소덕이)에 좋아요, 댓글 작성하고 축제기간에 굿즈 스토어를 방문하면 된다. 문의 070-4420-6533.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불타는 트롯맨' 광주 출신 이수호, 광주서 '희망 콘서트'

10월 1일 광주예술의전당

올해 초 종영한 MBN 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은 최고시청률 16.6%(닐슨코리아)를 기록하며 트롯 열풍을 일으켰다.

프로그램 준결승에 진출했던 이수호(사진) 씨는 당시 '수호천사'라는 별칭으로 인기를 모았다.

트롯 가수 이수호와 다양한 초대가수들을 만나는 자리가 마련된다. 코리아문화기획사(대표 이연화)가 다음 달 1일(오후 4시) 광주예술의전당에서 여는 'With You! 희망 콘서트'가 그것.

광주 출신 이수호 씨는 광주남초등학교를 졸업했으며 호남예술제에서 성악부문 동상을 수상했다.

KBS 전국 노래자랑 인기상 외에도 KT 올레TV 캐스팅 프로젝트 키즈부문 1등을 수상했다. 지난 6월에는 응원가 성격의 신곡 'With You! 라릴라디야'를 발표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지지 않아, 질 수 없지. 세상이 꿈짜마리아야/달려라 라릴라디야"라는 신곡의 노랫말은 힘든 일상 속에서도 희망을 꿈꾸게 한다.

이날 행사에는 탤런트 조승규와 배도환, 작곡가 이

호섭, MC 겸 가수 조영구 등이 함께 출연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한편 이수호는 "광주 시민들과 트롯을 매개로 만날 수 있어 기대된다"며 "트롯만이 보여줄 수 있는 흥과 신명을 목소리에 담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갈라강판 지붕공사

징크판넬시공

창호(삿시)교체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농막

옥상스틸방수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